

Child-friendly Spaces in Disaster Shelters for Child Disaster Victims

Bo Reum Kim[#], Seol Mi Oh[†], Deok Hui Cho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role, and cases of child-friendly spaces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to child disaster victims who have difficulty in protecting themselves and insufficient resilience due to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Nepal, Japan and China experiencing earthquakes with a magnitude of 7.0 or higher, international NGOs and the government worked together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with experts in child-friendly spaces in disaster shelters. Child-friendly spaces were designed to help children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and recover early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counseling, play and education as well as child-tailored services such as food, relief goods, medical and sanitation services. The 2017 Pohang earthquake in South Korea without child-friendly spaces lacked goods, spaces and services specifically for children in disaster shelter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etailed regulations for disaster shelter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 child care areas should be provided in shelt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anual to resolve problems with child psychological support and to train professional experts who can protect and educate children in disaster situations.

Key words: child friendly spaces, earthquake shelter, children in disaster

1. 서론

재난은 모두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Chang, 2016)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유지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게 된다(Sim, *et. al.*, 20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이처럼 재난에 취약한 아

동, 노인,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기가 쉬워 특별한 관심이 요구 된다.

재난상황에서 아동은 신체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고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Yoon, *et. al.*, 2014). Bullock,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하루일과, 식단,

[#] The 1st author: Bo Reum Kim, Tel. +82-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dianakim15@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eol Mi Oh, Tel. +82-51-510-1559, e-mail. snow@pusan.ac.kr

수면 습관, 욕구와 공포를 체험하는 상황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인과 다르며 이와 같은 특징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취약성을 극대화 한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주거, 영양, 위생, 수면, 휴식 등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의 탄력적인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의 일상의 붕괴될 수 있으며, 재난 이후에도 생리적 반응 및 건강 상태 저하로 성인보다 감염위험이 높아 수인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Bullock, *et. al.*, 2017). 심리적 특성에서는 아동이 재난사건의 경험과 물질적·인적 손상으로 충격과 공포를 받게되며(Vogel & Vernberg, 1993; as cited in Lee, 2004; Oh, *et. al.*, 2011), 충동적, 공격적 행동, 분리불안, 감정의 기복, 무력감이나 슬픔, 죄악감, 멍하니 있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Honda, 2012). 때문에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2016)에서는 아동을 심리회복지원의 대상자 중 우선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 발달적 특성에서 아동은 인지적 미성숙과 표현력의 부재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대처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후 적응단계에서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Lee, 2004; Bullock, *et. al.*, 2017). 또한 아동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아 발육부진을 겪거나 인지발달과정이 중단되는 경우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Bullock, *et. al.*, 2017).

이와 함께 아동의 '장소 의존성'은 익숙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안전감과 일상감을 위협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게 한다(Bullock, *et. al.*, 2017; Oh, *et. al.*, 2011). 따라서 지진, 홍수와 같이 장기간 대피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의 공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적 취약성을 위협받는 아동에게 신체·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해외 재난대피소에서는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을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고 필요한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친화공간을 설치한 사례나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1. 국내의 재난피해아동 지원 서비스 현황

한국의 아동 대상 재난관리 규정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아동 재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서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Legal Information, 2018).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 학교장은 매년 1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대피, 지진대피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비훈련을 월 1회 실시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즉, 국내에서는 재난예방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대상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은 보육기관과 학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콘텐츠(Chung, *et. al.*, 2014)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어린이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7)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어 재난 예방단계에서는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재난의 대응 및 복구단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체계는 심리지원 위주로만 이루어졌고 성인에 비해 아동대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에서는 재난 이후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및 동행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이와 함께 Oh, *et. al.*(2011)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개입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의 심리개입에만 집중되어 있어 아동의 재난 취약성 중 심리적 취약성을 제외한 신체 및 발달 취약성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통합적인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난피해아동 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치료프로그램이나 위기상담과 같은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Lee, *et. al.*, 2004; Lee, 2004; Shin, 2017), 부모놀이치료, 가족테질리언스와 같이 가족체계의 기능강화를 통한 심리사회적 위기와 회복을 다루고 있었다(Kim & Park, 2012; Shin, 2017). 그 결과 재난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재난아동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난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안정 및 돌봄 등 신체, 심리, 발달을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2. 해외 아동친화공간 선행연구

한편 해외에서는 신체·심리사회·발달적 욕구 차원에서 아동친화공간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심리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동친화공간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대조군의 아동에 비해서 심리적 고통이 감소하고 안정감과 행복감 그리고 회복력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Ispanovic-Radojkovic, 2003; Loughry, *et. al.*, 2006; Kostelny & Wesselles, 2008; Madfis, *et. al.*, 2010; Metzler, *et. al.*, 2015). Ispanovic-Radojkovic(2003)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11세~18세 이재민 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전쟁외상 정도를 측정된 결과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한 아동이 대조군 아동에 비해 재난이후 심리적 고통 완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존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팔레스타인 분쟁지구에서 1년간 아동친화공간 서비스를 이용한 6세~17세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Loughry, *et. al.*, 2006)에서 아동행동척도의 외부문제와 내부문제의 평균점수가 대조군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티 솔로몬 제도에서 Madfis, *et. al.*(2010)가 진행한 연구 역시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한 4세~6세 아동이 개입 후 심리사회적 회복력과 사회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telny & Wesselles(2008)는 우간다와 북부우간다 캠프에서 아동친화공간에 참여한 3세~6세 아동들이 대조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보였고 친구, 어른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행복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Metzler, *et. al.*(2015)의 연구는 2차 자료를 통해 아동친화공간의 운영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에티오피아에서 아동친화공간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가 대조군 아동의 부모에 비해 불안감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친화공간의 서비스가 아동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인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한 아동부모의 지지가 대조군 아동부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oughry, *et. al.*, 2006). 두 번째로 발달적 차원의 변화에서는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한 아동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생존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Madfis, *et. al.*, 2010) 아동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다(Ispanovic-Radojkovic, 2003). 마지막으로 신체적 차원의 변화는 Kostelny & Wesselles(2008)의 연구에서 아동친화공간을 도입한 지역 아동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강간 그리고 화재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었으며 Metzler, *et. al.*(2015)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친화공간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

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국내의 『지진대피소¹⁾ 지정·운영 기준 개발』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마련 규정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약자를 위한 구호시설과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ee, *et. al.*, 2017). 실제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대피소 내 아동을 위한 초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공백, 심리적 외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전문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과 같이 단기 복구가 힘들어 아동이 장기간 구호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재난취약성을 고려한 개입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친화공간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하고 도입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공간을 적용한 해외사례들 중에서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남긴 최근의 대형재난으로 네팔, 일본,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아동친화공간을 도입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에는 포항지진 당시 지진재난대피소에서 이루어진 아동지원서비스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이 피해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가능한 빨리 회복하여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재난아동지원 서비스 마련에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아동친화공간

1. 아동친화공간의 도입배경

아동은 발달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 입는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하다(Kronik, *et. al.*, 1999). 때문에 자연재해나 무력충돌과 같은 위기상황은 취약계층

인 아동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UNICEF(2009a)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재난을 비롯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15세 미만의 아동 중 7,700만 명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주거, 건강, 심리사회정서적인 문제를 포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더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문제는 기존의 아동 보호체계를 무너뜨려 아동이 취약한 상태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만든다. 이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아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통합적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동친화공간이 도입되었다.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은 UNICEF의 주도하에 창안되어 1999년 4월 코소보(Kosovo) 전쟁 상황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터키 이즈미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동친화공간이 사용되었다(UNICEF, 2004). 아동친화공간 역사에 있어서 코소보와 터키에서 실행된 초기 도입의 선례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난민 아동을 위한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그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백 개의 아동친화공간을 스리랑카 및 남부 인도지역 캠프 내 임시보호소, 단기보호소 인근 등의 장소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재난상황에서 아동친화공간을 채택하는 인도주의적 기관이 확대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Save the Children, 2008, 2009; Davie, *et al.*, 2014; UNICEF, 2014;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5) 2018년 9월 28일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진도 7.5의 술라웨시섬 지진피해지역에서도 아동친화공간이 도입되었다. 이때 아동친화공간은 NGO기관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국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1) 대피소는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위한 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대피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진일보한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Kim, *et. al.*, 2014).

2) Korea Jungang Daily (2017.11.19). “포항 지진 대피소에서 만난 ‘나홀로’ 아이들, 돌봄 절실”

(Save the Children, 2008, 2009; UNICEF, 2009b, 2010, 2011, 2012; CPWG, 2012; Davie, *et. al.*, 2014; Metzler, *et. al.*, 2015; Madfis, *et. al.*, 2010).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아동친화공간을 장기적인 재난관리의 한 방법으로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쓰촨성 지진 이래로 UNICEF와 Save the Children을 통하여 아동친화공간을 도입하였고(Jiang, *et al.*, 2008) ‘아동발달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2011-2020)’과 ‘재난재건 사회사업 5개년 계획’에 아동친화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UNICEF, 2011). 호주의 경우 비상사태 시 아동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동친화공간을 재난관리계획에 포함시켰고 최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Save the Children과 적십자사 그리고 지방정부 및 주정부의 협력 하에 아동친화공간을 통해 아동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Davie, *et. al.*, 2014).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의 인가 하에 NGO와 협력하여 아동친화공간을 설치하였다(World Vision, 2011).

1989년에 발표된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권리에 기반 한 접근과 개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권리기반 접근의 일환으로 UNICEF는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 및 학습을 위한 안전한 환경구축 중기 전략 계획(MTSP)’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개입전략 중 하나가 아동친화공간³⁾이었다. 아동친화공간은 ‘무력충돌 상황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기 상황이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적 지원, 심리적 지원, 발달적 지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정서적 안전, 사회·인지적

Table 1. Synonyms of child friendly spaces

Key search term	Child friendly spaces
Synonyms	Child centered spaces
	Child protection centers
	Emergency spaces for children
	Safe play areas
	Safe spaces
	Psychosocial spaces
	Psychosocial intervention(s)

※ Source: Ager, *et. al.*(2013).

발달, 건강 및 영양 상태 전반에 걸쳐 균형을 유지하며 통합된 접근을 제공하고자 한다(UNICEF, 2004).

2. 아동친화공간의 개념 및 구성

Ager, *et. al.*(2013)는 아동친화공간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친화공간의 동의어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⁴⁾ 동의어들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아울러 볼 때 아동친화공간은 응급상황을 대비한 안전한 공간이며 놀이를 시행하고 아동을 보호하며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최초로 아동친화공간의 개념을 제시한 UNICEF(2009a)에서는 아동친화공간(CFS: Child Friendly Spaces)을 ‘위기상황에서 아동 복지를 지원하는 아동 권리 프로그래밍 접근’으로 본다. 다시 말해 ‘아동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아동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적 방식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장소’이며 ‘자연 재해나 무력 충돌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뿐만 아니라 놀이, 레크리에이션, 교육·보건·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The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⁵⁾에서는 아동친화공간을 ‘아동이 구조화된 놀이, 레크리에이션, 자유놀이, 휴식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마련한 안전한 공간이자 환

3) UNICEF(2004)에서는 ‘CFS/E(Child Friendly Spaces/Environment)’로 표기하였으나 이후에는 CFS의 용어를 사용하여 본 글에서는 CFS로 통일하여 표기함.

4) Ager, *et. al.*(2013)은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s)’, ‘평가(Evaluation)’, ‘인도주의(Humanitarian)’등의 검색어를 통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2,005개의 문서 중 3개와 NGO를 통해 제공받은 22개의 비공식 문서 중 7개의 문서를 선정하여 최종 10개의 논문을 분석하였음.

5) The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CPWG)이란 인도적 활동에서 아동보호를 조정하는 국제 포럼이다. 이 단체는 비상사태 시 보다 예측가능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어린이 보호를 강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NGO, UN, 학계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인도주의 시스템에서 CPWG는 국제보호클러스터 내 ‘책임의 영역’을 맡고 있다(Save the Children, 2019).

경'이라고 정의하였다(CPWG, 2012).

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친화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구조적인 놀이와 학습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한 공간'(Metzler, *et. al.*, 2015), '긴급상황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아동의 보호 및 지원'(Mitchell, 2014), '재난 또는 분쟁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아동이 또래와 함께 음악, 미술 등 심리·치료적 활동을 하며 재난 이전의 상태로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5), '아동이 놀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한 공간'(Save the Children, 2009) 등으로 정의된다. 종합하면 아동친

화공간은 '재난이나 전쟁등의 위기상황에서 아동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안전한 공간과 함께 놀이, 교육, 심리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아동친화 공간에서는 일정에 맞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Table 2>, <Table 3>).

아동친화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살펴보면 발달, 교육, 건강 및 영양, 심리사회적지원, 지역사회 필요, 삶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령대에 따라 아동의 필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연령을 고려하여 진행되며,⁶⁾ Save the Children(2008)의 경우 학

Table 2. Contents of the programs

Development	Free play Organised play Story telling Dance, music, drama, singing, puppet-shows Sports Traditional and modern game	Psycho-Social Support	Professional support Psychosocial activities Peer-to-peer support Parental counselling Play therapy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al activities Formal education in lieu of schools Pre-school services Drawing and painting	Community Needs	Participation in public works Peer education Mapping of resources and hazards Organising activities for younger children Support activities for caregivers Youth Clubs
Health and Nutrition	Screening Food programmes Hygiene training Immunisations	Life skills	Conflict resolution HIV and AIDS supports Strengthening positive attitudes Peac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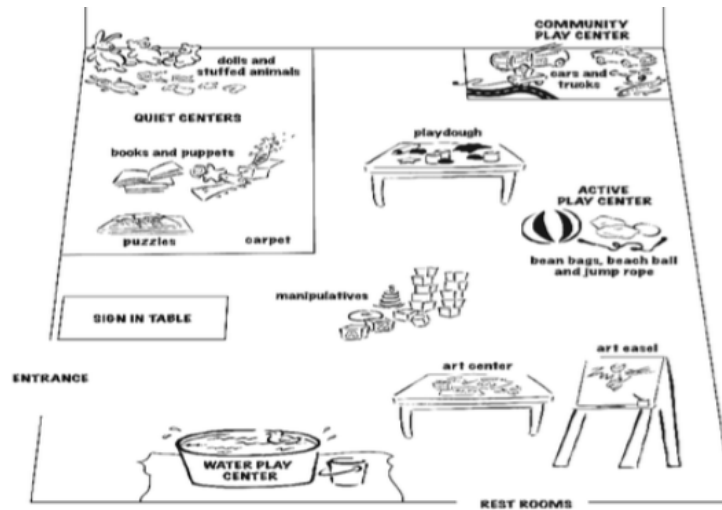
※ Source: UNICEF(2009a: 42).

Table 3. Program schedule

Time	Pre-school	School-age	Youth
09:00~09:15	Registration / meet and greet	Registration/ meet and greet	Registration / meet and greet
09:15~10:30	Psychosocial games and activities	Psychosocial games and activities	Service learning
10:30~10:45	Snack	Snack	Snack
10:45~12:00	Puzzle, games, centers	Puzzle, games, centers	Life skills /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12:00~12:30	Lunch	Lunch	Lunch
12:30~13:00	Story time	Reading circle	Reading circle
13:00~15:00	Art and Crafts	Exam preparation	Exam preparation
15:00~16:00	Outside time / parachute game	Outside time / sports	Outside time / sports
16:00	Parent / guardian pick up	Parent / guardian pick up	Parent / guardian pick up

※ Source: Save the Children(2008: 82).

6) 아동친화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범주는 신생아 및 갓난아기, 미취학아동(6세 미만), 학령기아동(6~12세)과 청소년(13~18세)의 네 가지 연령대로도 구분 함. 이 중 6~12세의 아동그룹이 아동친화공간의 주요 타겟이 됨(UNICEF, 2009a, 2010, 2011, 2012 ; Save the children, 2008; Metzler, *et. al.*, 2015).



※ Source: UNICEF(2009a: 57).

Figure 1. Diagram of a child friendly space

령전기(Pre-school), 학령기(School-age), 청소년(Youth)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UNICEF(2009a)는 주요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Figure1>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입구에서 등록과정을 거치며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놀이, 조작활동, 신체활동놀이, 미술놀이,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놀이도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책읽기, 퍼즐 등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친화공간의 운영기간은 지역의 피해규모나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복구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이 장기화되기도 한다(UNICEF, 2009~2011).

3. 아동친화공간의 가이드라인

1) 아동친화공간의 원칙

아동친화공간은 UNICEF에서 처음 개념화하고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구체적인 원칙과 실천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다. 아동친화공간의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UNICEF, 2009a). 첫째,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아동친화공간의 안전성은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해야 한다. 활동의 주체는

정부, 기부자, 국제기구, NGO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아동친화공간이 보장하는 안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폭력이나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활기를 주고 지지하는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원칙은 아동에게 활기를 주는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이다. 아동친화공간은 아동이 회복력(resilience)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격려와 지지, 민감성이 요구된다. 세 번째 원칙은 아동친화공간이 커뮤니티 내의 구조와 역량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친화공간 개발 시에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아동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원칙은 아동친화공간 설계 및 구현에 참여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법으로 참여를 강조하면서 아동이 다양한 하위 그룹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의 질,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원칙으로 아동친화공간은 통합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교육, 보호, 건강의 영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많

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 마지막 원칙은 아동친화공간이 포괄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 성별, 능력, 언어, 인종, 성적 취향,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동친화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아동친화공간의 지침사항

한편 아동보호실무그룹(CPWG, 2012)에서는 아동친화공간 운영 시 지켜야 할 9가지 지침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지침은 적절성, 역량 구축, 모니터링이 있다. 적절성(Appropriateness)에서는 아동친화공간의 설치여부, 설치방법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친화공간은 안전성과 치안문제를 고려해 필요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7)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은 직원의 전문성에 관한 것으로 아동친화공간 운영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동기가 있고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Save the Children(2009)의 경우 운영 목적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아동의 복지상태를 정기 점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인식수준, 활동의 질, 안전성, 물품보급 등의 아동친화공간의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용대상 지침사항으로는 특수집단, 연령과 성별 배려, 장애인식, 부모에 대한 지침 등이 있다. 특수집단(Specific groups)지침은 UNICEF(2009a)의 포괄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과도 관련되며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평등과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고위험군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으면서 유형별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연령과 성별 배려(age and gender sensitivity)지침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의 특성

을 고려하여 놀이보다는 또래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식(disability awareness)지침은 장애아동이 아동친화공간에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장벽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Parents)지침은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기술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나 양육설명회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내용으로는 아동친화공간 내 활동인 놀이와 협력대상인 학교에 관련한 지침이다. 놀이(Play)는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놀이와 휴식,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다. 아동친화공간은 모든 연령의 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적합한 노래나 그림, 게임을 통해 개별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은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Schools)는 중요한 협력기관이므로 아동친화공간은 학교와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학교운영이 재개된 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활동계획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친화공간의 원칙(UNICEF, 2009a)과 지침사항(CPWG, 2012)은 모두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토록 한다.

III. 재난피해아동 지원 사례

대형지진으로 인하여 가옥이 붕괴되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수개월 간 대피소에 머무르며 생활해야한다. 이런 경우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다양한 물품과 돌봄, 놀이교육 서비스 등을 필요

7) 소년병 징집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아동친화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로 하기 때문에(Bullock, *et. al.*, 2017) 아동을 위한 놀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안으로 아동친화공간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친화공간을 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 중에서 강도 7.0 이상의 대형지진이 발생하여 아동친화공간을 제공한 네팔과 일본,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대피소를 이용했던 2017년 포항지진을 선정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피소 운영 사례 연구보고서와 지진 관련 언론기사를 토대로 지진재난대피소에서 이루어진 아동지원서비스를 검토하였다.

1. 네팔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11시 56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76km 떨어진 고르카 지역에서 규모 7.6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네팔 인구 33%에 해당하는 8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8,790명의 사망자와 2만 2,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총액은 네팔 GDP의 36%에 달하는 70억 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5). 지진은 국가 절반에 달하는 31개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 그 중 14개 지역은 구조 및 구호활동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위기지역(crisis-hit)으로 분류되었다.

피해지역의 인구특성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여자아동이 가정에 머물며 일하는 시간이 많아 남성과 남자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7,000여 개의 학교가 붕괴되면서 유소년층의 피해가 다른 인구층보다 크게 나타났다(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5). 280만명의 이재민 중에서 40%에 달하는 아동 110만명이 곤경에 처했다. 피해지역에는 흙과 몰타르(mortar)로 지은 집들 대부분과 보건진료소의 90% 그리고 학교건물의 80%가 무너졌다(UNICEF, 2016). 이 지진으로 인해 약 70만에서 98만 2,000명의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삶을 유지하는 빈곤층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통, 방수포, 그리고 파괴된 집에서 건질 수 있는 자재로 만든 임시 숙소에서 1년 넘게 거주했다. 설상가상으로 혹독한 날씨와, 장기간의 정치적 분쟁, 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다.⁸⁾

재난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공간은 UNICEF 244개, Save the Children 61개, World Vision 35개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아동을 위해 신체적·심리적·발달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Plan International, *et. al.*, 2015; UNICEF, 2016). Plan International, *et. al.*(2015)의 연구보고서⁹⁾에 따르면 아동들은 거주지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첫 번째로 호소하고 있었고 사생활을 침해받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아동들은 수많은 이재민과 함께 임시거주지에 생활하는 것에 대해 심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나타냈다.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도 발생했으며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에는 안전하면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거주지, 위생 시설 마련, 안전한 식수 제공, 학교로의 복귀, 의료시설 제공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아동친화공간에서는 신체적 차원의 지원으로 산모아동 건강, 수유, 영양, 식수 교육을 위한 건강관리자를 파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생활용품, 생존키트 그리고 의류를 지원하였다. 위생관리를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인력을 파견하여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도관 공사, 긴급현금지원, 우기·동절기 물품, 텐트도 지원하여 안락한 거주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네팔 아동들은 지진을 겪은 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집을 잃은 슬픔이 컸으며 여진에

8) 인도와 네팔 간의 정치적 분쟁으로 주요 물품의 수입이 4개월 이상 심각하게 제한되어 연료, 의약품, 식품을 구하기가 힘들어 이중고를 겪었고 혹독한 날씨로 5세 미만의 어린이 300만 명이 겨울철 질병의 노출되는 위험에 처했음(UNICEF, 2016).

9) Save the Children과 World Vision, UNICEF, Plan International은 외교부, 아동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5-6월까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14개 지역에서 8세-18세 아동 1,838명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 생계를 위해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다. 여자아동의 경우 폭력상황에 빠지거나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정하고 두려운 심리상태를 나타내었다(Plan International, *et. al.*, 2015). 이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이후 혼란스러운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을 통해 아동 교육보호 및 위생교육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친화공간에서 교재를 포함한 아동 심리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가족 찾기,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배치 및 위기아동 개입, 국가 간 입양 및 고아원 신규 등록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적 지원에서는 임시학습센터와 반영구 교실을 설치하고 교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사네트워크 조직 활동이 진행되고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동을 위하여 학습문구를 제공하였다.

2.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도후쿠(동북)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후 발생한 쓰나미는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Choi, *et. al.*, 2011).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현이 큰 피해를 입어 발전소 근방 20km는 대피지역으로 정하고 20km~30km지역 거주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도록 하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로 이루어진 거대복합재해로 큰 피해를 끼쳤다(Jung, 2012).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1만 9,50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약 16조 9,0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World Vision, 2011). 재난의 피해로 거주지를 옮긴 주민의 수는 38만 7,000명이었다(Save the Children, 2012). 아동의 경우 약 1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있었는

데 0~19세의 사망자는 727명, 부모 중 한명이나 모두를 잃은 아동은 1,567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학교 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7,524곳이었다(Save the Children, 2012).

재난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공간은 Save the Children 19개, World Vision 7개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아동을 위한 신체적·심리적·발달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친화공간은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기 때문에 아동이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움직임이 없던 아동들이 마음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었고(World Vision, 2011) 이와 함께 재난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가가 대피소로 파견되기 때문에 아동보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Save the Children, 2011; World Vision, 2011).¹⁰⁾

신체적 지원은 식사요리 캔, 생수, 우유, 조리도구, 공동취사장, 젓병, 분유와 같은 식생활 지원과 남아·여아용 티셔츠, 아동용 속옷과 신발, 양말, 그리고 재난 대비모자와 같은 아동 맞춤형 의류지원이 있었다. 위생지원으로는 위생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위생키트, 휴지, 아기용 물티슈, 소독용 젤, 타월, 기저귀, 아기욕조가 제공되고 샤워시설, 임시화장실이 설치되었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심리적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PFA)가 실시되어 아동에게 즉각적인 심리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와 정서지원이 있었고 Kid's Door와 함께 적극적 경청기술, 역량강화기술 및 학습 지도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힘든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일상감을 주어 아동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었다(Save the Children, 2011). 아동은 친구, 친척들과 떨어지며 소속감과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크게 느껴 심리적 스트레스를 표출하곤 하였으나 아동친화공간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10) World Vision(2011)에서는 재난대응팀 보호분야 사무관(Protection Manager)이 합류하여 일본의 아동친화공간설치에 필요한 계획 및 자재조달에서 부터 참여하였고 Save the Children은 미야기 차일드 네트워크(Miyagi child Network)와 연계하여 아동친화공간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50명을 지원받았음.

(World Vision, 2011).

그리고 발달적 지원에서는 임시 학교 교육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학습지도를 시작하고 학습 기자재와 함께 책가방과 학용품 키트(Back to School Kit), 학습세트를 제공하고 놀이 활동, 장난감 제공, 꿈의 트럭극장(예술공예, 연극관람), 광대극 및 참여형 연극, 축구교실도 이루어졌다.

3. 중국원찬 대지진

2008년 5월 12일 14시 28분(현지시각) 규모 8.0의 대지진이 중국 청두(成道) 북서쪽약 75km 지점의 원촨현에서 쓰촨성 원촨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Park, et. al., 2008; Tang, 2018). 지진은 중국의 10개의 성과 434개의 직할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10월 21 일까지 발생한 33,000건의 여진으로 인해 2008년 9월 25일 기준으로 사망자 6만 9,227명, 부상자 37만 4,643명, 실종자 1만 7,923명이 발생하였고(Jiang, et. al., 2008) 댐 붕괴와 같은 2차 재해를 초래했다(Park & Im, 2008).

이 지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약 8,523억 위안(한화 약 139조 원)으로 추산되며 그 중 쓰촨, 산시 및 간쑤 지방의 손실액은 전체의 99.16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은 주택이며(약 4,038억 위안) 그 다음으로 운송, 산업, 용수, 전기 설비, 서비스, 농업 및 시민 재산 손실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Jiang, et. al., 2008). 이로 인해 많은 인프라가 상실되었고 그 중에서도 학교건물 붕괴(7천여채)는 아동의 교육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Chung, 2008).

중국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난 대응을 진행하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단계에서 중국적십자사를 시작으로 UNICEF와 Save the Children 등의 NGO기구들이 협력하여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을 위한 구호 및 아동친화공간을 설치 운영하였다(Jiang, et. al., 2008; Save the Children, 2008, 2009; UNICEF, 2009b, 2010, 2011, 2012). 재난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공간은 UNICEF 40개, Save the Children 7개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아동을 위한 신체적·심리적·발달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신체적 지원의 일환으로 물, 보조식량, 유아식, 영양보충제, 비타민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들과 지역당국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양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에이즈환자가정을 방문하고 위생물품, 샤워용품세트, 침낭, 모기장, 전염성 질환 예방용 콜드체인 장비, 유아타월 및 파우더와 텐트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임시화장실, 정수처리장, 아동샤워시설(5세 이하 영아대상)를 설치하였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장기적 심리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아동보호와 심리지원에 관한 기술지

Table 4. A summary of child friendly spaces by country

Country	Nepal			Japan		China	
Service period	2015.4-2016.3			2011.03.~2012.03		2008.05 ~ 2009. 05	
Damaged areas	Mugling, Kathmandu, Dhulikhel			Miyagi, Iwate, Fukushima		Sichuan Province and more (10 provinces), 434 prefectures	
Victimized children	About 1.1 million to 3.2 million children			More than 100,000 children (dead: 727)		Over 3 million children	
NGOs	UNICEF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UNICEF	Save the Children
Child Friendly Spaces (CFSs)	244 CFS	61 CFS	35 CFS (3,535 children)	19 CFS (More than 800 children, 4-14years old, 535 children in Fukushima)	7 CFS (326 Children, under 17year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40 CFS (332,000 Children)	7 CFS (1,260 Children)

※ Source: Plan International, et. al.(2015), Save the Children(2011~2012), UNICEF(2012, 2016).

원이 있었다. 발달적 지원으로는 학교 복구를 지원하면서 임시학교를 설립하고 기자재와 학용품을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장애인 아동의 교육을 위한 교수 및 학습자료, 교실 텐트 및 조립식 장치 교육지원이 있었으며 놀이도구, 스포츠장비, 완구를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 지원 및 역량강화, 교사 및 학교 행정가 대상 학교안전 및 관리교육, 취학 전 아동 교육지원 및 학교물품과 놀이도구 필요여부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Save the Children, 2008~2009; UNICEF, 2009b~2012). 아동친화공간은 특히 접근이 어려운 시골지역에서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아동 보호 서비스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UNICEF, 2012).

4. 포항지진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5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총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약 1,500명의 인원이 대피하였다. 실내체육관, 학교 강당, 경로당에 22개 대피소를 설치하였으나 지진 발생 당일 대피소를 방문한 이재민들의 인원 대비 수용공간 및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아 사람들은 화장실, 세면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진발생 3일차부터 수용인원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면서 운영이 차츰 안정화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피자 재배치, 텐트 설치를 비롯한 피해지원 활동공간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족 및 친지 대피로 인해 연락이 단절된 대피자들에게 피해지원 정보를 안내하였다(Lee, et. al., 2017).

하지만 포항시 당국은 지진 발생 2일차에도 이재민 내 아동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대피소에서 제공하는 물품 목록에 아동을 위한 물품이 부족하여 기저귀, 간편 유아식, 그리고 놀이활동에 필요한 크레파스, 그림책, 스케치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포항지진대피소 운영 중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아동의 활동 공간 부재로 인해 영유아

울음소리나 아동의 소음이 발생하면서 이재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아동의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어 아동의 요구를 고려한 구호물품 및 시설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다(Lee, et. al., 2017).

이와 함께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요청도 잇따랐다. 대피소에 거주하는 일부 양육자들은 지진피해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보느라 출근을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지진발생 7일 후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봉사자를 파견하여 아이돌봄방 3곳을 대피소 안에 개설하여 보호자의 출근으로 낮 시간 동안 혼자 지내는 아동을 비롯하여 일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마련하였다(Lee, et. al., 2017). 아이돌봄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아이돌보미 9명과 봉사자들이 보호자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돌봄과 놀이 활동, 간단한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Gyeongbuk Newspaper, 2017).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들이 휴교로 인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포항 지역아동센터들이 뜻을 모아 휴교기간 동안 임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Gyeongsang Daily Newspaper, 2017).

한편, 지진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동에게 1대 1 심리상담 및 집단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병원,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으로 구성된 3명의 상담 팀이 3개 대피소에 배치되었다(Korea Joongang Daily, 2017).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피해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화 접수를 실시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다. 경북도상담소시설협의회 심리치료지원단은 대피소 내 아동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였다(Gyeongsang Daily Newspaper,

2017). 이렇듯 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심리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담소의 경우 지진 이틀 후 포항지역의 22개 대피소 중 3곳에만 설치되어 서비스가 필요한 다수의 아동에게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80여명의 시설아동이 머물던 항구초 대피소에는 상담소와 아이돌봄방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욕구가 더 높은 요보호 아동이 오히려 우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일부 대피소 심리상담소가 과도하게 개방되고 주목받는 무대 위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방문을 꺼려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Korea Joongang Daily, 2017).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동지원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네팔과 일본, 중국 사례에서는 UNICEF,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NGO와 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대피소 내 아동친화공간에서 신체, 심리, 발달의 세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체지원 영역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아동 맞춤형 식료품과 응급물품, 의류 및 육아용품 등이 제공되었다. 아동친화공간의 설치에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 직접 세팅하고 특히 아동보호전문가가 파견되어 아동친화공간의 원칙과 지침에 맞추어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교사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에 아동친화공간을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 된다.

심리지원 영역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리적응급처치(PFA)가 아동에게 즉각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재난으로 인한 심리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중국과 네팔의 사례에서도 장기적으로 심리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를 통해 가족과 친구, 일상생활공간을 잃은 아동의 상실감과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달지원 영역의 서비스로는 놀이, 학습, 퍼즐 등의 게임뿐만 아니라 연극관람, 인형극, 참여형 연극, 축구교실과 같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 및 발달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UNICEF(2009a)에서는 아동친화공간 설립에 아동의 창의력과 발달을 장려하는 완구를 지원하도록 해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장난감과 놀이기구, 미술 도구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고, 스포츠, 미술 및 공예 활동, 그룹 활동, 몸동작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곤 하였다(UNICEF, 2009a, 2015; Save the Children, 2011). 이러한 활동들은 재난 상황에서 부족할 수 있는 아동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바를 훈련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친화공간의 비차별 원칙과 이용대상 지침사항인 특수집단, 연령, 성별, 장애인식을 배려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아동친화공간은 재난상황에서 영역별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심리·발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문가의 계획 아래 아동의 취약성과 욕구에 기반한 활동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재난 시 아동의 회복력을 높여주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한국에서 지원된 아동을 위한 재난 서비스에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피소 내 아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였으며 아동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 및 서비스가 미

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포항 지진 당시 국내의 지진대피소에서는 이들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의 정확한 명단을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동의 신변보호는 물론 아동을 위한 물품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호물품에서 아동을 위한 분유나 기저귀, 아동용 의복 등 필수적인 유아용품이 부족한 점도 발견되었다.

이는 국내에 재난유형별 대피소 운영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진대피소 관련 세부 규정은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지진은 재난의 특성상 초기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진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지진 이전에 정부지정 지진대피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지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대피소 지정 및 운영기준이 개발되었으나 ‘영유아 및 임산부가 있는 가족은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장소에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거나 ‘아동을 위한 공간과 놀이터를 확보하여 기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Lee, et. al., 2017)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지진대피소 운영매뉴얼에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하고 구호물품구성에 아동을 위한 물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임시대피소 시설장비 및 구호물품기준(FEMA, 2011)에서 임시대피소에 비축되는 물품은 100명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는데 100명중 25명은 아동을 기준으로 비축하며 의복 역시 10%는 아동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위생용품키트 역시 아동용 칫솔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유아관련 대비품목도 세부항목별로 준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유아 발달 단계별 음식

과 성분별 분유 및 유아용 의약품, 샤워용품 및 화장실, 색칠도구, 게임도구 및 장난감을 갖추고 있어 재난시 아동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Lee, et. al., 2017). 이와 함께 아동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난발생 직후 지역사회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중인 아동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추적 팔찌를 제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Bullock, et. al., 2017).

둘째, 아동지원 심리서비스의 조기개입과 제공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는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의 심리지원에 집중하였으며 피해가 큰 지역에 아동친화공간을 설치하여 심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포항지진 사례에서는 지진 발생 7일 이후에 아이돌봄방이 설치되어 아동의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담소의 경우 지진 발생 2일 후를 기준으로 포항지역 22개 대피소 중 3곳에만 설치되었으며 일부 대피소 심리상담소는 과도하게 개방되고 주목받는 무대 위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방문을 꺼려한다는 지적도 있어(Korea Joongang Daily, 2017) 서비스가 필요한 다수의 아동에게 심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였고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난 발생 초기에 심리적 응급처치(PEA)를 비롯한 심리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신속하고 포괄적인 아동심리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친화공간은 비차별 원칙을 통하여 고위험군인 요보호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인 시설아동이 머물던 대피소에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욕구가 더 높은 아동이 우선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초기에 고위험군 아동을 파악하고 우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재난대피소에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친3.

화공간에서는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연령별 발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일본 사례에서는 아동친화공간에서 참여형 연극, 꿈의 트럭극장, 연극관람, 축구 교실 등의 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발달 및 놀이 프로그램이 언급되지 않아(Gyeongbuk Newspaper, 2017; Gyeongsang Daily Newspaper, 2017; Korea Joongang Daily, 2017) 세분화된 프로그램 확충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난대피소 내 아동돌봄공간에서 재난이라는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동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대피소에서 아이돌봄방을 통해 긴급상황에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지원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 아이들이 겪을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재난대응관리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은 아동의 발달단계별 돌봄 서비스 내용을 다루는 80시간의 교과학습이론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돌보미 인력을 재난 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National Center for Legal Information, 2018)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가 확보 및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적인 증거기반 중심의 아동친화공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형재난 상황 시 재난취약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재난대응서비스를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아동친화공간의 해외사례를 통해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증가하는 재난의 규모와 빈도, 복합성을 고려할 때 재난대응 서비스, 특히 대피소를 이용할 정도로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대규모 재난에서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신체·심리·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 소개한

아동친화공간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ger, Alastair, Janna Metzler, Marisa Vojta, and Kevin Savage. 2013. Child Friendly Spac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Current Evidence Base on Outcomes and Impact. *Intervention*. 11(2): 133-147.
- Bullock, Jane A., George D. Haddow, and Damon P. Coppola. 2017. *Managing Children in Disasters*. Translated by Mi Young Sung and Young Hee Kim. Seongnam: Book Korea.
- Chang, Eun Ha. 2016. Disaster and Gender: Focusing on Vulnerabilities and Capabilities. *Gender Review*. 43: 16-23.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Response*. Geneva: CPWG.
- Choi, Seong Gil, Hide Aki Matsumoto, Shin Ichi Hirano, and Ji Hoon Park. 2011. Tsunami Disasters and Tectonic Movements along the Coastal Areas of Northeast Japan Derived from Mega-earthquake in March, 2011.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19(3): 141-149.
- Chung, Ka Youn, Suhng Bin Lim, Yu Jin Han, Hyun Sun Choi, and Tae Woo Nam. 2014.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Elementary Student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 Chung, Kwang Ryang. 2008. Contribution: Sampung Department Store Collapse · Aneha Scandal · Sichuan Earthquake.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52(5): 96-98.
- Davie, Susan, Elise Erwin, Marie Stuart, and Fiona Williams. 2014. Child Friendly Spaces: Protecting and Supporting Children in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0(1): 25-30.
- FEMA. 2011. Commonly Used Sheltering Items and Services Listing (SUCI-SL). Catalog.
- Gyeongbuk Newspaper. 2017. 11. 22. Pohang City to Operate Three "Child Care Centers" in Earthquake Shelters.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191606
- Gyeongsang Daily Newspaper. 2017. 11. 22. Gyeongbuk Province to Promote Measures to Care for Children with Vulnerable

- Childhood in Pohang Earthquake.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70&idx=190968.
- Honda Keiko. 2012. Leading to the Hearts of Children in Affected Areas: Advice from Clinical Psychology, WASEDA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Translated by Jung-min Kim.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Ispanovic-Radojkovic, Veronika. 2003. Youth Clubs: Psychosocial Intervention with Young Refugees. *Intervention*. 1(3): 38-44.
- Jiang, L. L., J. Wang, and L. Liu. 2008.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ing Emergency Response to Sichuan Earthquake. Ministry of Civil Affairs, P. R. China and Asian Development Bank.
- Jung, Mi Ae. 2012.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Civil Society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24(1): 1-22.
- Kim, Ji Tae, Sang Hyun Ahn, Sang Mun Kim, Hee Kyu Kim, Min Jung Shin, and Young-jin Kwon. 2014. Technology Development of Integrated Shelter Management and Evacuee Support in Shelt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 Kim, So Hee and Mee Hyun Park. 2012. Study on Social Work Practic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Resilience of Families in Disast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101-122.
- Korea Joongang Daily. 2017. 11. 19. Children Meeting at the Pohang Earthquake Shelter, Necessity to Take Care of. <https://news.joins.com/article/2212754>
- Kostelny, K. and M. Wessells. 2008. The Protect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Young Children Following Armed Conflict: Outcome Research on Child-centered Spaces in Northern Uganda. *Journal of Developmental Processes*. 3(2): 13-25.
- Kronik, A. A., R. A. Akhmerov, and A. Speckhard. 1999. Trauma and Disaster as Life Disrupters: A Model of Computer-Assisted Psychotherapy Applied to Adolescent Victims of the Chernobyl Disaster.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6): 586-599.
- Lee, Ji Hyang, Myung Chan Son, Deok Geun Park, Tae Woong Jung, Bo Ram Lee, Hye Won Kim, Da Wi Kim, Ki Hwan Lim, Ki Jong Park, Hyeong Gu Kang, and So Young Han. 2017. Developmen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Standard of Earthquake Evacuation Shelt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Lee, Soo Yeon, Woong Yong Choi, Kwan Hong Jong, and Choon Kyung Kim. 2004. Effectiveness of the Cognitive-behavioral Crisis Counseling for the Adolescent Survivors in Daegu Subway Disaste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1): 156-168.
- Lee, Yoon Joo. 2004. Psychological Effects of Disaster and Strategies of Psychological Assistance for the Recovery from Disaster: Child-focused Approac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1): 28-40.
- Loughry, M., A. Ager, E. Flouri, V. Khamis, A. H. Afana, and S. Qouta. 2006. The Impact of Structured Activities Among Palestinian Children in a Time of Confli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2): 1211-1218.
- Madfis, J., D. Martyris, and C. Triplehorn. 2010. Emergency Safe Spaces in Haiti and the Solomon Islands. *Disasters*. 34(3): 845-864.
- Metzler, J., K. Savage, M. Yamano, and A. Ager. 2015. Evaluation of Child Friendly Spaces: An Inter-Agency Series of Impact Evaluations in Humanitarian Emergencies. New York and Geneva: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Introduction to Child Care Work 2018*.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7. *Children's Disaster and Safety Training Guidebook*. Ulsa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Working-Level Manual for Disaster Recovery Support.
- Mitchell, M. 2014. Special Edition Foreword. *The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9(1): 5. www.em.gov.au.
-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5. Nepal Earthquake 2015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Vol A Key Findings. <http://nra.gov.np/uploads/docs/wQxngUUy2r160512083450.pdf>
- National Reconstruction Authority. 2016. Nepal Earthquake 2015 Post-disaster Recovery Framework. <http://nra.gov.np/uploads/docs/wQxngUUy2r160512083450.pdf>
- Oh, Hea Young, Hyun Nie Ahn, and Eun youn Kim. 2011.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Disaster Surviving Youth.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161): 1-234.
- Park, Byeong Cheol and Jong Hyeok Im. 2008. The Summary of Major Disasters and Accidents Occurred in 2008.
- Park, Byeong Cheol, Jung Han Lee, Deok Geun Park, and Won Ho Lee. 2008. A Proposal for Seismic Disaster Prevention through the Case of the Great Wenchuan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China.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1(3): 26-35.
-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UNICEF, World Vision, Government of Nepal Central Child Welfare Board, 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Local Development. 2015. After the Earthquake: Nepal's Children Speak Out_Nepal Children's Earthquake Recovery Consultation.
- Save the Children. 2008. *Child Friendly Spaces in Emergencies: A Handbook for Save the Children Staff*.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064/Child_Friendly_Spaces_in_Emergencies_EN.PDF.
- Save the Children. 2009. *Child Friendly Spaces Facilitator Training Manua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child-friendly-spaces-facilitator-training-manual>.
- Save the Children. 2012. Japan-One year on: Save the Children's Response and Recovery Program.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library/japan-one-year-save-childrens-response-and-recovery-program>.
- Shin, Na Ra. 2017. Effect of Filial Therapy on Parents Psychological Trauma and Behavior of Children Who Experienced Gyeongju Earthquakes. Master's Thesis. Namseoul University.
- Sim, Gi O, Sang Hyun Park, and Sung Hee Jung. 2010.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Tang, Yu Jing. 2018. Study on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Park Green Planning: Focus on Sichuan Province, Chengdu City, China.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UNICEF. 2004. Child Friendly Spaces/ Environments (CFS/ E): An Integrated Services Response For Emergencies and Their Aftermath.
- UNICEF. 2009a. A Practical Guide to Developing Child Friendly Spaces.
- UNICEF. 2009b. Sichuan Earthquake: One year Report.
- UNICEF. 2010. Sichuan Earthquake: Two year Report.
- UNICEF. 2011. Sichuan Earthquake: Three year Report.
- UNICEF. 2012. Case Study on Narrowing the Gaps for Equity.
- UNICEF. 2014. Documenting Child Friendly Spaces Across Typhoon Haiyan Affected Areas. <https://www.alnap.org/help-library/documenting-child-friendly-spaces-across-typhoon-haiyan-affected-areas>.
- UNICEF. 2016. Nepal Earthquakes: One Year Later Moving on. <http://UNICEF.org.np/media-centre/reports-and-publications/2018/08/07/nepal-earthquakes-one-year-later-moving-on>
- Vogel, J. M. and E. M. Vernberg. 1993. Part 1: Children's Psychological Responses to Disast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4): 464-484.
-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5. Evaluation of Child Friendly Spaces: Tools and Guidance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CFS.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5055789_Evaluation_of_Child_Friendly_Spaces_Tools_and_guidance_for_monitoring_and_evaluating_CFS.
- Yoon, Ji Won, Keum Ho Oh, and Byung Tae Yoo. 2014.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Child Safety Policy based on Child Protection Concept. *Crisisonomy*. 10(11): 1-19.
-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ildfundgbac&logNo=221154833963>. Childfund Korea. 2017.
- [2] <http://overseas.mofa.go.kr/np-ko/br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pal. 2018.
- [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17000178>. Herald Corporation. 2017.
- [4] www.law.go.kr.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 [5] <http://www.mofa.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
- [6]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3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 [7] www.law.go.kr. National Center for Legal Information. 2018.
- [8] <https://www.sc.or.kr/>. Save the Children. 2018.
- [9]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ublishers/cpwg-child-protection-working-group>. Save the Children. 2019.
- [10] <https://www.sc.or.kr/news/story.do?pageIndex=1&tabType=BBSA10003&schWord=%EC%9D%BC%EB%B3%B8>. Save the Children. 2011.
- [11] <http://www.index.go.kr/potal/main>. Statistics Korea.

[12]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2018.
 [1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The World Bank. 2018.
 [14] https://www.worldvision.or.kr/business/business/international_relief/business_calamity_report_list.asp?masterSeq=98&pageNo=&searchType=&searchKeyword=. World Vision. 2011.
 [15] <https://www.wvi.org/>.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국민안전처. 2016.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국민안전처. 2017.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 울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소희, 박미현. 2012. 재난피해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전략 탐색. 사회과학연구. 38(3): 101-122.
 김정민 역. 2013. 피해지역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서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지태, 이석호, 안상현, 김민기, 지용근, 김상문, 이경빈, 최정열, 이민호, 김건우, 박영진, 김삼렬, 김희규, 문영삼, 허진호, 신민정, 함은구, 권영진, 최은지, 한유림, 김동은, 윤웅기. 2014. 재난유형별 대피소 통합관리 및 대피생활지원 기술 개발: 이재민·민방위 대피소 및 풍수해·지진대피소를 중심으로. 국립방재연구원 연구보고서.
 박병철, 임종혁. 2008. 2008년도 주요재난 및 사고 사례조사. 한국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 연구원 방재연구소.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보육사업안내.
 신나라. 2017. 부모놀이치료가 경주 지진을 경험한 부모의 심리적 외상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심기오, 박상현, 정성희.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1. 재난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 개발. 청소년 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161): 1-234.
 윤지원, 오금호, 유병태. 2014. 아동보호 개념으로의 아동안전 정책방향 연구: 재난관리 관점에서. Crisisonomy. 10(11): 1-19.
 이수연, 최웅용, 홍종관, 김춘경. 2004.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1): 156-168.
 이윤주. 2004.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12(1): 28-40.
 이지향, 손명찬, 박덕근, 정태웅, 이보람, 김혜원, 김다위, 임기환, 박기중, 강형구, 한소영. 2017. 지진대피소 지정·운영 기준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은하. 2016. 재난과 젠더: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43: 16-23.
 정가운, 임승빈, 한유진, 최현선, 남태우. 2014.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탁 보고서.
 정광량. 2008. 자유기고: 상품백화점 사고·아네하 건축사무소 사건·쓰촨성 지진. 건축. 52(5): 96-98.
 정미애. 2012.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 동서연구. 24(1): 1-22.
 최성길, 박지훈. 2011.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재해시의 쓰나미 재해와 지각변동. 한국지형학회지. 19(3): 141-149.

Received: Dec. 27, 2019 / Revised: Feb. 18, 2020 / Accepted: Feb. 18, 2020

재난피해아동을 위한 재난대피소 아동친화공간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고 회복력이 부족하여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재난피해아동에게 아동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친화공간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하고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진도 7.0 이상의 대형지진이 발생한 네팔, 일본, 중국 사례에서는 국제 NGO와 정부가 협력하여 재난대피소 내 아동친화공간에서 전문가를 통한 신체·심리사회·발달영역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동친화공간은 아동 맞춤형 식료품과 구호물품, 의료·위생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받으면서 심리치료와 상담, 놀이와 교육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아동친화공간을 도입하지 않은 한국의 포항지진 사례에서는 재난대피소에서 아동을 위한 물품과 공간, 서비스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피소 세부규정을 수립하고 대피소에 아동돌봄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아동심리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매뉴얼 마련과 재난의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아동친화공간, 지진대피소, 재난피해아동

Profiles **Bo Reum Kim** : She received hers M.A. from University of York, in the U.K. in 2013. S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doctoral student. She i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her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Social Welfare Policy and International Social Welfare(dianakim15@naver.com).

Seol Mi Oh : She received hers M.A.,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5. She is also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she is be enrolled in a doctoral cours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er areas of interest are Disaster Vulnerable and Digital Social welfare (snow@pusan.ac.kr).

Deok Hui Choe : She has been on a master's cours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8. She i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nd her main area of interest is career development specifically, the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o youth. Also, she is doing research in crisis intervention and follow-up for children(starchristin@pusan.ac.kr).

